

벗어나기와 드러내기의 독특한 양상

최근작 세권의 소설을 읽고

신덕룡

문학평론가·광주대 교수

최근 출간된 세 편의 소설은 나름의 특색과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 이균영의 《노자와 장자의 나라》, 남상순의 《나비는 어떻게 앉는가》, 김원우의 《안팎에서 길들이기》가 그것이다. 이들 각각의 작품은 주제나 소재 그리고 삶의 형상을 그려가는 기법에 있어 각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굳이 이들 작품을 분류하자면, 《노자와 장자의 나라》와 《나비는 어떻게 앉는가》는 과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삶을, 《안팎에서 길들이기》는 작가가 처한 삶의 현재를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리라.

집념과 실패의 의미를 되새김

이균영의 《노자와 장자의 나라》는 우리 삶에 집념과 실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작품이다. 각 인물들의 집념의 대상을 보자. 김문도는 정치에 대한 집념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한때 국회의원이 될 절호의 기회를 맞기도 했으나 실패한다. 결국 재산은 물론 아내마저 잃고 자신의 몸조차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의 아들인 김시목은 대학 입학 후 아버지가 선택한 미래에 대해 회의하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은 사법고시 합격을 향한 집념으로 이어진다. 결국 고시에 실패하고 40이 되어서야 조그만 유통회사 말단사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김시목의 그림자로 살아왔던 강윤희 역시 시목과의 결혼에 실패한다.

세사람의 실패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집념의 성격과 인생에서 실패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다. 김시목의 경우,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문제는 이런 목표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 이 길을 걷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강윤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녀의 시목에 대한 사랑은 순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목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진학에의 열정과 좌절, 사랑을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으로 나타난다. 집착과 집념은 맹목적인 행위로 이어지고, 이런 행위는 인생의 폭과 깊이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설정한 수단이 목표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삶의 중심부를 향한 집념조차 스스로의 결단이나 의지보다 자기과시에 그치는 것이라면 자신이 만든 함정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에 불과하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40이 된 후에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시목이나, 브라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윤희의 결정은 패배자의 것이 아니다. 이들은 비로소 집착이란 노예상태에서 벗어나 진실로 현재의 주역이 되는 삶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존재의의는 여기에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속적인 욕망 충족을 향한 삶에 매달려 있는 오늘날, 차분하게 자신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해주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의 벗어나기

남상순의 《나비는 어떻게 앉는가》 역시 과거로부터의 벗어나기를 다루고 있다. 80년대 대학운동권의 핵심분자로 일해왔던 철민의 삶이 그것이다. 대학 졸업 후, 생활전선에 뛰어들 그는 운동권 선배 황수명의 정신병원 입원으로 인해 80년대 운동권의 삶을 마주하게 된다. 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에서 자신을 소외시킨 건국대 사태, 애학투의 실질적 지도자인 중앙위원 오영후, 선배인 황수명의 피체와 고문, 연이은 운동권 핵심세력의 피체와 조직의 와해...이 모든 사건 가운데 손차경이 끼여 있음을 보게 된다.

작가가 철민을 통해 그려내는 삶은 불미스런 과거의 비밀캐기, 아니면 80년대의 치열했던 삶에 대한 회의인가? 보기에 따라서는 80년대 운동의 전면적 부정으로 보일 수 있다. 학생운동권의 순수과 정열, 상처와 후유증, 모든 것의 배후에 권력의 촉수가 닿아 있었고, 운동권의 핵심세력들은 오늘날 저마다의 실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80년대의 상처 치유가 부끄러움과 허무의 극복 위에서 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이다. 참다운 삶을 이루고자 모인 동지들 속에 음험한 배반이 도사리고 있었고, 순수한 열정조차 힘있는 자의 논리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눈뜸 그 자체가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과거 운동권 문제를 다룬 소설들이 빠지곤 했던 자기연민이나 허무주의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부끄러운 과거가 현재 삶을 옥죄는 족쇄라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에 보태진 상상력

김원우의 《안팎에서 길들이기》는 작가 특유의 문체가 돋보이는 세 편의 중편으로 엮여졌다.

《안팎에서 길들이기》에서는 시간강사, 시인 겸 소설가, 과외선생, 학원논문을 준비하는 학생인 최재슬의 소설쓰기를 보여준다. 글쓰기의 과정에는 그의 개인적 생활환경과 조건이 뒤엉켜 있다. 그는 결혼 후 적당히 속물화되었음에도 처녀시절의 낭만을 고집하는 아내와 철저히 세속화된 장모의 위선을 부담스러워 한다. 결국 이사를 핑계로 준별거 상태로 들어간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삶 역시 편편하지 못하다. 박학다식하지만 무책임한 지식인인 지도교수, 학문적 열정이나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없이 지적 허영을 즐기며 아르바이트를 물물교환 썸으로 치부하는 학생들...이 것들이 그를 감싸고 있는 환경이다. 여기서

그는 속물화된 아내를 희화화시킨 소설을 구상한다.

《이미지의 임자》는 화가들과의 관계를 축으로 소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화자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화랑주인으로부터 여유화가 조해리의 개인전에 초대받는다. 거기서 그녀의 남편과 화가들의 난잡한 대화에서 그들이 서로 이미 간음을 했거나 즐기고 있다는 상상을 한다. 이를 계기로 그는 조해리 부부를 등장시킨 소설을 쓰고자 한다. 도덕이나 윤리를 접어두고 상상을 펼친 결과 두편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엮어진 이야기는 기본 구도도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소설이 끝난다.

《식민지 주민의 눈》은 서출이면서도 아버지의 재력에 힘입어 일본유학을 했고, 나름대로 자기분야에 성공한 L화백의 삶을 보여준다. 그는 본부인에게서 2남2녀를 두었음에도 큰딸 나이의 첩에게서 두 딸을 낳았다. 가정이나 세상에 대해서나 평생 침묵과 눈짓으로 주위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그의 삶은 무책임한 '식민지 주민의 처세술'에 다름아니다. 스스로 등뒤의 감시자를 의식하면서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과묵함과 재력을 바탕으로 한 일정한 발언권 유지라는 세속적 수단을 강화시킨 삶에 불과하다. 따라서 철저한 이기주의와 위선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형편에까지 이른다.

이들 세 편의 소설에 깔려 있는 것은 소설가의 글쓰기나 작품(소설, 그림)이 더 이상 신비하거나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생활인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작가에 의해, 적당히 골라진 소재에 상상력을 보태 씌어지는 것이 소설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소설은 80년대와 같은 지사형의 작가와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위업을 부릴 수 없다. 소설은 우연성이 개재한 현실과 소재를 적당히 조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 역시 조금은 지루할 뿐 비극적이지도 않다. 다만 소설은 시력교정을 하는 안경사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가치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의의를 지닌다는 소박한 믿음 위에 존재할 뿐이다.

《안팎에서 길들이기》 김원우 지음
문학과학사/A5신/374면/6500원
《노자와 장자의 나라》 이균영 지음
중앙일보사/A5신/272면/6000원
《나비는 어떻게 앉는가》 남상순 지음
민음사/A5신/308면/6000원